

## 다이몬과의 방황

---

### I

소크라테스는 석가, 공자, 예수와 함께 인류가 나온 4대 현자 중의 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세 현자와는 달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인물이며,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그는 다른 세 현자처럼 제자를 거느린 적도 없으며,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내린 적도 없었다. 그는 다만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델포이의 신전에 새겨져 있던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을 뿐이었다. 그는 정치가나 학자, 시인이나 기능공 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들이 자만에 빠져있거나 권위를 과시할 때 그것을 논박하여 당혹하게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에게 혐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지만, 정작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였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타락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내면에서 들려오는 ‘다이몬(Daimon)’의 음성을 듣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신령으로서 그에게는 항상 무엇인가를 금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는 그것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는 아마 이성적 판단이나 양심의 소리 같은 것을 내면에서 환청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버릇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소크라테스는 아폴로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닐 정도였다. 비록 그 자신이 신의 명령에 따라 아테네 시민을 각성시키려는 역할을 한다고 공언하였지만, 이 소문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팔순을 훌쩍 넘긴 지금 내가 새삼스럽게 소크라테스를 회상하는 것은 이 ‘다이몬’ 때문이다. 나는 대학에 진학할 무렵 혼자 지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고,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습관이 생겼다. 이러한 습관이 철학과를 선택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다이몬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거의 매일 밤 편지

를 썼다.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숨긴단 말인가. 이 편지 형식의 일기장이 두터워지면서 다이몬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그는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이기도 했고,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이기도 했고, 때로는 연인이기도 했고, 심지어 성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의미의 개인적인 수호신이기도 했다.

아무튼 나는 다이몬과 같이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그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결코 외롭지 않다고 믿었다.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나’에 들린 녀석”이라고 했을 때 나는 과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노발리스가 스피노자를 “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이 지나간 셈이다. 정말 그 시절 내 영혼은 다이몬을 양식으로 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 다이몬이 생각난다. 또 다이몬을 생각하면 폭풍 치는 언덕을 힘겹게 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게 된다. 얼마 전에는 동기생 모임에서 어떤 친구가 ‘다이몬’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씩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언덕에서 다이몬과 방황하며 나 자신과 사투를 벌이던 그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당시 교지인 《서강타임스》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물려받은 전통도 없고 창조할 능력도 없다. 나는 믿을 종교도 없고 사랑할 여인도 없고 다정한 친구도 없다. 내 육신이 밥과 김치를 먹고 자랐다면, 내 영혼은 다이몬을 씹으며 커 온 것이다. … 그러므로 다이몬을 부르는 내 목청은 비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방황을 지속할 것이다. 이 외롭고도 숭고한 방황을! 탄탈로스의 운명처럼…”

요즈음에는 다이몬을 생각하면 먼저 소크라테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실 그가 살았던 아테네와 오늘날의 한국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점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각기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물질적 여유와 개인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한국이 북한에 보이는 양상은 정치체제, 경제구조, 문화형식 등이 비슷한 스파르타에 대한 아테네의 적대적인 대결의 양상과 이상할 정도로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아테네에는 적어도 한 사람의 소크라테스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일 것이다. 그는 플라톤이 남긴 「변명」이라는 대화록에서 “영혼의 정화에는 관심이 없고 명예와 권력과 재화의 축적에만 여념이 없는 아테네 시민”들을 꾸짖었다. 비록 그는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지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물으면 영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가능하다. 그가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어디로인지 분주히 달려가고만 있

다. 무서울 정도로 가속화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상황이다. 정말 어디로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다이몬’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백만 명의 백만장자보다는 영혼을 정화하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내가 내 삶의 궤적을 ‘다이몬과의 방황’이었다고 부르고 싶은 이유도 바로 나 자신이 ‘작은 소크라테스(le petit Socrates)’가 되고 싶은 소망의 표현일 것이다.

## II

원래 ‘다이몬’이란 말은 ‘초자연적’ 혹은 ‘영적 존재’를 의미하며, 당시 그리스에서는 인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가사의한 운명적 사건은 이 다이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인간이 운명적으로 지니게 되는 수호령(守護靈)이라고 여겨졌다. 호메로스로 이것을 ‘신’ 또는 ‘신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으며, 인간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에우다이몬(eudaimon)’, 나쁜 관계에 빠지면 ‘카코다이몬(kakodaimon)’이라고 불렀다. ‘daimon’이라는 말 자체에 악의라는 뜻은 없었고, 다이몬은 신령이라는 뜻의 명사이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이모니온(daimonion)’이라고 한다. 영어권의 ‘daemon’은 고대 그리스 종교를 이단시하는 기독교적 해석이며, 현대 영어에서도 ‘악마’나 ‘귀신’이란 의미 외에 ‘명인’ 혹은 ‘정력가’라는 뜻도 있다. 서강대학교 재학 시절 심술궂게도 유난히 다이몬을 많이 찾았던 이유는 젊은 ‘객기’나 반항적 기

질의 표현이었을 지도 모른다.

여하튼 ‘다이몬’이란 개념은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그것은 나의 삶 전반과 내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데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석가나 공자, 예수 등 성현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따르려고 노력도 하였으나, 역시 소크라테스가 개인적으로 체질에 맞고, 그의 이른바 ‘소크라테스적 성찰’이 시대적으로도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들 성현의 가르침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한 현상이 이 성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여전히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로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성에 관한 한 인류는 조금도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석가의 자비와 무념, 공자의 인애(仁愛)와 예의(禮義),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구원 등의 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상과 비견되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그의 핵심적인 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생소한 편이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의 명성에 비해서 여전히 그는 우리에게 상당히 낮은 인물로 비추어져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원전 4세기경에 고대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인물로서 서양철학을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웠던 위대한 철학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아테네 시민들에게 삶의 지혜에 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내린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그는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구현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상적 인간의 전형으로 내세우지도 않았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답변을 마련하는 대신 스스로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계속 회의의 시선을 보냈을 뿐이었다. 가령 선이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덕을 가르친다고 호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처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간청하거나 당부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태도에 당혹한 사람들이 답변을 요구하면,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응답했다. 그러한 의미로 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찰’과 ‘자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에 비유해서 언급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도 장님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코끼리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만 조금 알 뿐이다. 그러나 나는 코끼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지 가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인은 동서와 고금이 첨예하게 격돌하는 현대문명의 “교두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아직 새로운 가치관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모두 실감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비와 무념, 인애와 예의, 사랑과 구원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조차도 그 해석과 실천의 방법에 따라 때로는 새로운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결국 더욱 심각한 불신과 증오와 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자각과 성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작은’ 소크라테스가 되어, 그가 말하는 ‘자각’과 ‘성찰’을 내 삶의 궤적이며 나의 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내가 감히 4대 성현들을 같은 비중으로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흠대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 나는 1942년생인데 5대 독자인 부친의 8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들어온 동네 소문에 의하면, 부친은 아들을 너무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매일 새벽 나의 출생지인 용산구 효창동으로부터 서대문구에 위치한 백련사까지



100일 기도를 다녔다고 한다. 마침내 부처님이 응답하여 태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태어난 연유였고, 내 이름도 그 당시의 주지 스님이 지어준 것이라고 전해진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태생적으로 불교와 인연이 있고, 또한 석가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란 말, 온 우주에서 나는 고유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뜻의 그 말을 그토록 좋아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 내가 자아의 문제에 천착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성품도 여기서 기인하는지 모른다.

한편, 나는 네 살 적에 부친을 여윈 이후로 이른바 실천하는 ‘유생(儒生)’으로 살아왔다. 심지어 유학 시절과 교환교수 등 10년 가까이 지낸 미국 생활 기간에도 제사와 차례를 거른 적이 없었다. 더구나 나는 항상 제례를 주관하는 ‘제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나는 이러한 제례를 통해서 가족과 혈연 등 인간관계 전반의 귀중함을 배웠다. ‘인간(人間)’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나’라는 개념도 남에 의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음을 배웠던 것이다. 특히 가족은 생물학적 개인이 사회성을 유지하게 하는 인류 존속의 기본 단위이며, 시대마다 다소 변질될 수는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임을 절감하였다.

또한 나는 기독교 문화권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춘기 시절 가까운 친구의 안내를 받아 동네 어느 감리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지금까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기독교와 인연을 맺어온 것이다. 나는 특히 서강대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이 학교의 재단이기도 한 ‘예수회(Society of Jesuit)’의 수도자 정신, 그 순결과 청빈과 순종의

정신을 흠모하였다. 무엇보다 이 정신의 저변에 깔린 ‘회심(meta-noia)’이란 말에 매료되었다. 그것은 원래 철학의 근본정신이기도 한 “좀 더 깊고 넓게, 그리고 멀리 생각하라”라는 뜻이 아닌가. 살다 보면 모순과 역설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의 한계를 수용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하나의 기성 종교에 귀의하지 못한 이유를 나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그 난해하고 독단적인 교리들과 복잡한 의례들, 혹은 다양한 교파들의 분쟁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유부단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내 성격 탓일 수도 있다. 여하튼 나는 나의 수호신이기도 한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에 집착했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나만의 종교이자 신앙 형태로 다듬어 왔으며, 다른 성현들의 가르침도 소크라테스적 성찰을 통해 수렴해 온 셈이다. 나는 이제 대학 시절 이후 내 안에 깊숙이 안주해있는 또 하나의 나를 더 이상 ‘다이몬’으로 부르지는 않으나, 나의 길이 다이몬을 쫓아 걸어온 길이었으며, 나의 삶이 한낱 ‘다이몬과의 방황’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고뇌와 낭만과 추억의 서강 언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린’ 나는 ‘나’로부터 쉽사리 헤어날 수가 없었다. 졸업 논문으로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의 ‘세 가지 실존’에 대해서 썼는데, 요지는 탐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난하나, 다시 종교적 실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아의 성찰이 다소 미흡했다는 분석이었다. 졸업 후 입대하여 대부분 시간을 보초로 보냈는데, 그동안 주로 ‘나’만을 생각했고, 그때의 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집단의 한 개체로서의

나였다.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의 석사 논문은 ‘대중 사회에서의 자아 문제’를 다루었는데, 대중매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른바 ‘사이비 자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논문을 마무리할 무렵 뜻밖의 행운을 얻어 웨인주립대학의 인문학과로 유학할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예술가들에 의해 나폴레옹이 자아 승화의 오브제로 승화되는 과정과 나폴레옹이 그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현상을 다루었다. 다시 이 대학 철학과로 옮겨서는 흄의 자아 정체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미시간주립대학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은 「결정론과 자유론 논쟁에서의 신비적 자아개념 분석」으로 정하였다. 나의 학문적 여정은 다소 전공이 바뀌기도 하였으나, 그 주제는 한결같이 이른바 ‘자아에의 의지’에 표출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구체화 되었으며, 실생활에서 적용되었는가.

### III

나는 여러 자료 중에서 크세노폰(Xenophon)의 『소크라테스의 회상(Memorabilia)』에 나오는 한 구절을 특히 좋아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아를 인식한 사람은 무엇이 적합한지 스스로 알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별하며,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바를 해냄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고, 그리고는 모르는 것은 삼감으로써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며, 또 불운을 피하게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알라고 한 것인

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나의 진정한 욕구와 능력과 당위가 무엇인지 알며, 동시에 그 아는 바를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임을, 플라톤이 이해한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상기할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자아는 나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삼각형의 모습과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곧 자아의 인식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거나 주위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 윤곽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원했었는지가 분명해지며, 또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지 등이 비로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특히 역경에 처했을 때 자아가 욕구와 능력과 의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동시에 각자의 ‘다이몬’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아의 인식’이라는 형태를 띤 다이몬과의 대화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함으로써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항상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자기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를 묻는 세 가지 질문, 즉,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나누어 제기하고, 또 거기에 각기 따로

답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변의 한계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욕구를 잘못 인식할 뿐 아니라 당위와 혼동할 수 있고, 욕구와 당위가 충족되어도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깊은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너무 일그러진 삼각형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자아의 인식을 위해서 막연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보다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 즉 좀 더 구체적인 자아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둘째, 세분화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아에 관한 한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더욱 명확해졌음을 깨닫게 된다. 이른바 자신의 ‘객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인식은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이른바 ‘반성된 삶’임을 인식하게 된다. 끊임없는 질문은 성찰을 유도하기 마련인데, 진정한 나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를 확인하면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나는 거기서 파생되는 나의 사고와 행위, 그리고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사는 동안, 말하자면 ‘다이몬과 방황’하는 동안 행운이 찾아와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게 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도 있으며, 어쩌면 행복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삶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부산물이라는 것은 삶에서 목표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것에 때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연이나 행운의 산물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식과 성찰로 인생의 여정을 관리하며 바람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가.

#### IV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 경의 말이 흥미롭다. 그는 등정에 성공한 후 기자회견에서 “왜 그 산에 갔느냐?”라는 질문에 “거기 그 산이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이 여기 있어서 살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하루씩 세월을 살다 보니 나이를 먹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셈이다. 그러나 등반과 달리 삶에는 단기간의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가 뚜렷한 것도 아니다. 삶에 있어서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워낙 긴 세월이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에 따라 ‘세대’ 별로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대’라는 계절과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한편, 등반은 내가 하는 것이므로 나만의 목표와 의미

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인식 혹은 자아 정체성의 확인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겠지만, 각자는 자신의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신만의 ‘에베레스트’가 있고, 자신만의 발걸음을 내디딜 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걸맞은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다이몬’이었던 것이다.

니체는 “배를 탔으면 정박해있지 말고 표류하지도 말고 다만 항해하라.”라고 말했다.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뚜렷한 목표와 안전한 선박과 동력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항해는 장기간에 걸친 것이어서 목표가 바뀔 때도 있고, 선박이 고장 날 때가 있으며, 동력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이에 대한 냉철하고 기민한 대처 방안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해의 주체인 선장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의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소망과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분석이다.

나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물으며 살아온 삶을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삶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지고의 행복을 쟁취하는, 혹은 구원이나 은총을 기약하는 최선의 삶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불행을 멀리하는 차선의 삶은 될 수 있다. 분명히 나는 ‘다이몬과의 방황’을 시작한 이래 그런 종류의 삶을 지속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나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했다거나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나는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아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몬과 함께 방황해 온 나의 삶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자평해 본다.

---

### 업정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시민기구(WCO) 철학종교분과 위원장 / 본지 편집인,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하버드대학교 폴브라이트 교환교수, 한국철학회장, 철학연구회장, 분석철학회장, 한국아메리카학회장, 철학문화연구소장 역임 / 미시간주립대학교 철학박사

저서: 『다이몬과의 방황』, 『격동의 시대와 자아의 인식』, 『소크라테스적 성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 『확실성의 추구』, 『당진일기』, 『길을 묻는 철학자』 등